

생윤 - 더 라스트
선지정리

(자연 윤리, 분배 정의, 롤스의 정의)

책 소개

생활과 윤리에서 1등급을 가르는 건 ‘자연과 윤리’와 ‘분배 정의’, ‘롤스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 수능 문제에 흐리터분한 언어 표현에 혼동을 느끼고 수능장에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수능장에서 긴장을 하면서 생활과 윤리에서 자주 나오는 독해 문제에 보거나 선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면, 잦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4일 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학생들이 마지막 정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연과 윤리’, ‘분배 정의’, ‘롤스의 정의’ 부분을 EBS 파이널과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정답 선지 해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선지 내용을 개념 정의처럼 적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나오는 용어와 문자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로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며, 수능 전날부터는 문제를 풀고 틀리기보다 개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 정리하기를 읽으면서 수능 1등급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목차

자연과 윤리

칸트의 입장 파악하기 - 5P

싱어의 입장 파악하기 - 5P

레건의 입장 파악하기 - 6P

테일러의 입장 파악하기 - 6P

분배 정의

마르크스 입장 파악하기 - 8P

노직의 입장 파악하기 - 8P

롤스의 입장 파악하기 - 9P

왈처의 입장 파악하기 - 9P

롤스의 정의

시민 불복종 - 11P

해외 원조 - 11P

자연과 윤리 선지 정리

칸트의 입장 파악 (인간 중심주의)

1. 칸트는 무생물과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닌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무생물과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여 정당한 목적이 있는 동물 실험과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레오폴드도 대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 가능하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의무는 경우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3. 칸트는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칸트는 인간 이외의 자연물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자주 나오는 칸트의 보기 중 늙은 말이나 개에 대한 보기 내용이 있다. 칸트는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의 입장 파악 (동물 중심주의)

1.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2. 싱어는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3.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의 소유 여부로 보았다. 또한 쾌고 감수 능력이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유일한 경계라고 주장하였다.
4. 싱어는 동물이 이익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공평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싱어는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5.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유기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다.